

제 40 호

연증제 22 주일  
(강림 후 12)

1973. 9. 2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 22주일 (marc I 21-30)

김 영 일 신부

“권위있는 새 교훈이다”(마르코 I. 27)

나는 금번 주교님의 특별 배려로 “제1차 교구사목에 대한 대 협의회”의 참석함과 동시 “사도분화 협의”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의회에서 요구되었던 “사목”이라는 말 자체에 의해 연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골짜로 하는 김남수신부님의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연수회에 참석한 모든이는 “권위있는 새 교훈”을 들은듯 상당한 더위에 불구하고 자못 진지하게 엿보였습니다. 분과토의도 주어진 시간이 아쉬울정도로 성심 성의 주교님께서 주제토의에 열을 올려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누구하나 제의없이 자기교구발전과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세워 보겠다는 다짐이 말 없는 가운데 나타나 보였습니다. 한가지 좀 아쉬웠다면 수녀님들이 많이 참석 못한 점입니다.

내일을 설계하려는 우리 역군들 이구동성으로 배워야 하고 모여야 하고 배우고 느껴야 하며 모여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들 하였습니다. 대협의회를 치루고 후련으로 정리해보는 마음에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간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기탄없는 평신도들의 요구는 대화없는데에서 오해가 생기고 부조리한데로 이끌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친목조차 흐터러지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두째로는 개인의 주장과 이권보다 공동체 의식이 앞장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회의나 모임이 서시하니 참석할 필요가 없다든가 나하나 빠져서 안될것 없느냐는 사고방식부터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한 “나”는 언제나 발전이 없고 뒤지게 마련입니다.

공의회에서 가르친 “권위있는 새 교훈”으로 대화와 공동체를 통한 대협의회의는 이제 출발을 보게되었고 키를 잡은 우리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치와 단결로서 뭉치고 모여 한목교회의 말이들르세 긍지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우리교구 5만 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할 것입니다.

(서학동 본당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입당송**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뻐 여기소서. 주여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뻐 여기시나이대

□ **제1독서** (신명기 4; 1-8, 경향잡지 9월호 P. )  
내 말에 아무것도 보태지 말고 야훼님의 계명을 지키라

□ **충계송** ◎주여, 당신 장막에 묵음이 누구오리까. 벗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는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 악한 자를 눈 아래 얹어 보아도 주를 섬기는 이런 존경하는 그 사람이이다. ◎

□ **제2독서**(야고버 1; 17-18, 21-22, 27. 성서 P.520, 521) 말의 실천자 되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조물 중 첫 열매가 되었다. 알렐루야

□ **복음**(마르코 7; 1-8, 14-15, 21-23, 성서 P.91, 92)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의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이웃이 주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목적하시는 바에 이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서투른 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 영생의 근원이신 주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구하시고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하여 감사할줄 아는 미덕을 항상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그분들의 영신사경에 관심을 가져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영성체송** 주여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굶아두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오나까

### \*이 주간의 성경\*

3. (월) 독서 (테살로니카전서 4: 12-18, 성서P.468)  
복음 (루 가 4: 16-30, 성서P.132)

4. (화) 독서 (테살로니카전서 5: 1-11, 성서P.469)  
복음 (루 가 4: 31-37, 성서P.133)

5. (수) 독서 (골로사이 1: 1-8, 성서P.456)  
복음 (루 가 4: 38-44, 성서P.134)

6. (목) 독서 (골로사이 1: 9-14, 성서P.456)  
복음 (루 가 5: 1-11, 성서P.135)

7. (금) 독서 (골로사이 1: 15-20, 성서P.457)  
복음 (루 가 5: 33-39, 성서P.137)

8. (토) ※ 성모 성탄 축일  
독서 (미 케 아 5: 2-5, 성서P. )  
복음 (마 테 오 1: 18-23, 성서P. 1)



□대학의 광장□

□잔디밭□



### 산다는 것

김 영 구 신부

#### 인생은 학교?

모든 인생은 하나의 학교이다. 하나의 준비이다. 하나의 목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지상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을 때에는 천상의(天上)의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무한히 긴 미래이지만, 노인의 입장에서 볼때, 그것은 몹시 짧은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늙어 봐야 한다. 즉 오래살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

나는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 하도다. (전도서)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와서 하루 하루는 기록된 최후의 순간까지 일보 일보 기어 들고 우리의 어제라는 날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비추어 준다. 꺼져라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듯이 떠들지마는 그것이 지나면 잊어버림을 받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 인생을 정서(淨書)한다면

나는 생각해본다. <만일 인생을 한번더 새롭게, 그 뿐 아니라 미리 자각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하고-이미 살아온 인생을 정서하라고 한다면, 그때야 말로 우리들은 체각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되풀이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되풀이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다. 결점 투성이의 인간이랄 수 밖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시편) 늙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 고독(孤獨)속에도 봉사(奉仕)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남을 위해서 산 삶의 내용에 있다.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삶에서 제외한다면 나의 삶은 죽음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큰 고독속에도 남에게 봉사한다.

인생은 한편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번밖에 그것을 읽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연극과 같은 것이다. 훌륭한 배우가 거지가 되는 수가 있으며 형편 없는 배우가 귀족이 되는 수가 있다. 인생은 행복한 사람에게는 짧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지루하다. 눈물과 더 불어 빵을 먹은 자가 아니면 인생의 진미를 알 수 없다.

#### 어느곳에?

- 방랑에 지친 물이
- 설수 있는 곳은 어디냐?
- 남쪽 나라의 종려나무 그늘인가?
- 라인강의 보리수 밑인가?
- 어딘지 모를 사막의 모래속으로
-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손에 묻힐 이 몸인가?
- 그렇지 않으면 거친 바닷가
- 모래 밑에서 영원히 깨지 못할
- 잠을 잘 것인가?

아무튼 좋다, 어느 곳일지라도  
신이 계시는 하늘이 내 몸을 덮어 주리니.  
그리고 밤에는 내 머리 위에서  
별들은 애도의 등불을 밝혀 주리니.

<전주시 교동 1가132-4>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제과 ③5011 찾집 ⑤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찾 집 \*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 원 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입부장>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③2212 ③7071)  
김 병 구(빈첸시오)



□ 양 지 쪽 □



달 달 무슨 달

원통 질은 녹색으로 꾸민 달지가 연두색에서 누런 빛깔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렷한 달한마디 못하는 코홀리개 초차 흥얼대는 “저 푸른 초원위에...”를 몰라도 자연의 변화만을 속일 수가 없다 보다. 내일 모레 두둥실 둥근 달이 떠오를 시기가 되니 세상이야 어떻게 제주를 넘던 들녘은 황금으로 단장하기 시작했다. 어딜가나 그 정직한 충만함에 기분이 마냥 좋기만 하다. 그저 좋기만 하다. 질푸르다 못해 검은 빛마저 띄던 자연은 인간의 땀을 마시며 서서히 그 모습을 달리하기 시작해서 거머리가 뜯은 피를 마시며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니 바람이 불 적마다 고갯짓하는 수숫대나 출렁이는 황금 물결의 뜻을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자연을 가꾸어 온 사람들 뿐일게다. 마스크에 비웃을 뒤집어 쓰고 농약을 뿌려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연의 몸짓을 알아 들을 수 있겠는가.

결실의 뜻은 분명 크다. 한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그토록 울어낸 친둥 번개의 이야기를 낭만스럽게 들어 온 하얀 얼굴을 한 사람들은 잘 모르리라. 소쩍새 울음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거머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결실의 뜻이 한 갖에 슬(?)에 지나지 않으리라.

실사 안다손치더라도, 어찌 사람들은 그리도 쉽게, 그 피나는 과정들을 그렇게 짱그리 잊을 수가 있을까? 아들의 그 빛나는(?)내일을 위해서 하나 남은 기둥마저 뽑아가며, 다 떨어진 런닝샤쓰의 등판을 무명형접으로 기워입고, 손톱에 피먹이 지도록 허리가 아팠던 아버지의 울음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을 벌이느라고 나와 너는 얼마나 애썼던가?

슬기로웠던 우리의 조상들은 해마다 이 계절이면 달맞이 굿 준비에 바빴다. 자연의 섭리로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가신 어른들을 기억할 줄 아는 미풍을 남겨 주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가? 과학문명의 발달은 이 지방으로 불어닥칠 배풍을 저 지방으로 쫓아버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게 맘대로 뜻대로만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는 자연에 순응해서 쓰여질때 값진 열매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이렇고 보면, 우리가 거둔 결실에는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작용하신 것이다.

또한 거머리에 뜯기운 아버지의 피가,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의 우리를 우리에게 한 것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가위 밝은달은 동산을넘어 솟아오르고 있다. 당신은 그달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예수나무의 그림자? 아폴로의 흔적을? 아니면 무엇을? (값)

요심이 (7) 김병오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③3498)

- 9월 4일(화) - 성경교실 P.M 8시
- 5일(수) - 레크레이션 P.M 8시
- 7일(금) - 외국 문화교실 (독어) P.M 5시
- 지성인 교리교실 P.M 8시
- 8일(토) - 외국 문화교실 (영어) P.M 5시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② 6 5 8 9

(미미사장 ③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민주 (가타리나)

왕자표연탄

전화: ②5287 ③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  
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1. 강 부주교님(분도) 4주기 9월 2일 미사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교회 묘지 소식-위령의 날(추석절)을 맞이하여 교회 묘지의 벌초를, 관리 위원회에서 공동 작업 시켰습니다. 교회 묘지의 확장과 관리운영을 위해 성묘당일 현장에 성금함을 마련할까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3. 오늘 하오 2시 30분 성프란치스코 재속 전주 방지교회 월례회가 있음.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부장은 예산안 지참 요망)
  - 2. 교리반 시작 금주부터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중전과 같음)
  - 3. 주일학교 개학 금주 토요일(9. 8)부터 주일학교를 개학하오니,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님의 열성을 바랍니다. (시간 오후 3시)
  - 4. 토요일 미사시간 변경 주일학교 개학에 따라 토요일 특전미사 시간을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 5. 구리아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2시, (강당에서)
  - 6. 위령미사 불현 위령의 날(추석절)을 맞아 당일 오전 6시에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하오니 미사에물을 10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레지오마리에 성년행사 9. 8(토) 오후 3시부터 성년 행사를 개최함. L.M. 단원, 협조단원은 대상자를 동반 본 행사에 전원 참여하시기 바람. (오후 3시부터 생사를 줌)
- 지난 주일 봉헌금 32,27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철호

- 1.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암원, 구역회장 전원 참석요망)
  - 2. 견진신청서는 오늘로서 마감하오니 아직 못매신 분은 금일중으로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 3. 영세식이 15일(유아세례 포함)에 있어오니 영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열심히 기도 바칩시다.
  - 4. 73년도 결산의 달 9월이 되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무 이행으로 본당운영 원활에 먼저 천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하여 연말 결산에 협조 바랍니다.
  - 5. 9월11일은 위령의 날(추석)로써 오전 10시에 먼저가신 조상들을 위해 합동 위령미사를 올리오니 정성어린 미사에물을 9월 10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주일학교 다음 주일 (9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 7. 월요일 미사를 접한 평회합 있음(이경호 형제대어서)
- 지난주일 성미 3말 3되 누계 187말  
지난주일 봉헌금 11,37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성 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월례회(오늘10시미사후)
  -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 3. 교무금 완납합니다. 9월은 예산 회계 말입니다.
  - 4. 9월 11일은 추석절(위령의 날)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조상을 위하여 합동 위령미사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성실껏 미사 예물을 바칩시다.
  - 5. 제 6차 학생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 지난 주일 신축성미 3말 누계 53말  
지난 주일 봉헌금 12,199원, 감사합니다.

**(서화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1. 오늘 밤 미사 후 사도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 2. 오늘 부터 주일학교 교리가 시작되며 오늘 오후3시에 교리반 선생님들 회합도 있습니다.
  - 3. 견진자들은 반드시 교리시간에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10시미사 후와 저녁 8시미사 후 있습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33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 2. 신용조합 임원회; 9월 8일 밤 미사 후
  - 3. 어린이 교리미사 시작; 9월 9일부터 어린이 교리부도 (오후 2시반)와 미사(오후 4시)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를 보내주십시오)
  - 4. 추석 합동 연미사 9월 11일에 조상(선영)을 위한 합동 연미사가 있습니다. 각 반장이 나눠주는 에 성의껏 미사 예물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5,5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미사 후 사제관
  - 2. 9월은
    - ① 복자 성월입니다.
    - ② 교회 회계년도가 끝나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새 회계년도 73년 10월 1일부터 74년도 9월 30일까지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만들고 사도회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 ③ 9월중에 본당 구내 소비조합을 발족합니다.
  - 3. 교무금 완납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72년 10월 1일 부터 7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교무금 자진 신타한 교무금은 9월중에 완납합니다.
  -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미사시간 5시반)
- 지난주일 봉헌금 32,665원, 감사합니다.

**관인 현대음악학원**

과 목 ; 재즈, 피아노, 전자음향, 어코디언, 클래식기타, 드럼, 성악, 관악

특 전 ; 악사 희망자 수료후 취업 알선, 교우 특별 우대함.

원 장 ; 염 규 철(요섭)  
부원장 ; 이 일 규(알로이스오)

전주서교사동 1가 125 (전주극장 동편)